



2018년 CYO 여름 캠프

[제1독서]..... 탈출 16,2-4.12-15

[제2독서]..... 에페 4,17.20-24

[화답송] 시편 78(77),3과 4ㄱㄷ.23-24.25와 54
(◎ 24ㄴ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알렐루야



주 님 은 하 늘 의 양 식 을 주 셧 네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복음] 요한 6,24-35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성가 안내]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 입당성가: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 봉헌성가: [221] 받아 주소서
- 성체성가: [156] 한 말씀만 하소서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 파견성가: [23] 온 세상 다스리심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²⁴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²⁵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²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²⁷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²⁸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²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³⁰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³¹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 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³²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³³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³⁴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³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묵상

오늘은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모세 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이 기도와
단식과 자선, 십계명 준수, 성전 예식과 깨끗한 정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 “하느님의 일”,
곧 하느님 마음에 드는 유일한 길이 그분께서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느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며, 동시에 주님의
계획과 거저 내어 주시는 사랑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과 그에 따른 임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 되고, 목마른 이에게는 마실 것을
주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군중처럼 빵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빵을 많게 하신 분을 보고 열광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물질적인 빵만을 원하는 군중에게 탁월한
계명을 전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바티칸 뉴스’(https://www.vaticannews.va) 한국어 서비스 시작

교황청 공식 뉴스 매체 ‘바티칸 뉴스’(https://www.vaticannews.va)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는 7월 27일 ‘바티칸 뉴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바티칸 뉴스’는 교황이 주재하는 삼종기도와 일반알현, 성녀 마르타의 집 미사를 비롯해 교황의 활동을 가장 신속하게 전달하는 매체다. 또한 교황청 소식과 지역교회 소식도 전달한다. ‘바티칸 뉴스’ 한국어 서비스 시작으로 이제 한국 신자들도 그날 그날의 교황과 교황청, 세계교회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바티칸 뉴스’ 한국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Vatican News’를 다운받아 한국어를 선택하면 된다.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모두 사용 가능하다.

바티칸 방송 한국지부(책임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허영엽 신부)는 2015년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그동안은 바티칸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한국어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이제 바티칸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이탈리아어, 영어 등 33



개국 언어 서비스에 한국어가 포함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한국어로 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탈리아어 원문 기사의 약 80%가 한국어로 제공되고 있다.

허영엽 신부는 “바티칸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바티칸 및 세계교회 소식에 보다 더 친밀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신부는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모든 세례 받은 이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에 대해 강조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이 바티칸

소식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함으로써 스스로의 복음화, 주변 이웃의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티칸 뉴스’는 교황청 공식 온라인 뉴스 포털로서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과 바티칸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합해 2017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티칸 뉴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 홍보 부서 개혁을 단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맞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제주 예멘 난민 위해 자선기금 1만 유로 전달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한민국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들을 위해 1만 유로를 기부하고 지지와 기도를 보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Alfred Xuereb) 대주교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는 예멘 난민들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1만 유로의 이 기부금을 교황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주 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에게 전달했다고 연합뉴스 통신사가 전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예멘 난민들을 돕고 있는 강우일 주교에 대한 교황의 연대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아울러 강우일 주교는 교황이 이주 현상에 직면하기 위해 제시한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의 네 가지 동사를 따라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교황의 문헌과 가르침을 통한 완벽한 조화 안에서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촉구하는 한편 예멘 난민들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주한 교황대사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가운데 527명의 예멘 난민들을 만나 각 난민들에게 교황의 축복과 인사를 전하는 한편 주교좌 중앙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https://www.vaticannews.va/>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마태 17,1-2).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공관 복음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 말씀에 따른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을 기리는 축일이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의 40일 전에 지낸다. 교회의 전승에 따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 주시고자 거룩한 변모의 표징을 드러내셨다. 1457년 갈리스토 3세 교황이 로마 전례력에 이 축일을 도입하였다.

Notes *Susan Hong, rising 9th grade teacher*

As the old 8th grade CCD co-teacher, being a CYO Summer Camp counselor was my first experience with CYO. It was such an amazing experience to be surrounded by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You eat together, PRAISE together, win challenges together, and pray together. We all had so much fun and made unforgettable memories. This camp brought all of us closer to not only each other but also closer to God. If you're a part of CYO, Summer Camp is the place to be! You will leave camp with lots of new friends, fantastic memories, and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God. What a great way to kick off our 2018 CYO school year!



Notes *Claire Lee, rising 9th grade*

I'm so thankful that I got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CYO camp this year! This was my first event with the upperclassmen since I am a rising freshman and I'm so grateful that I went and got closer with the other CYO members, teachers, and counselors. There were so many fun games and activities, and the staff helped make it more enjoyable. My favorite part of the camp had to be praised! It really felt like we were all one big family and I strongly encourage everyone to attend next year! Looking forward to the following years as a CYO student!



CYO
Summer
CAMP
Jul 19 - 22, 2018
CAMP ROUND MEADOW, MD



Notes *Erica Shin, rising 9th grade*

CYO camp was the best way to spend my summer break. My experience in camp this year included waking up early and starting the day off with some stretching, followed by games to see who'd get to eat breakfast first. We'd always have meal prayer together, but after eating, we would separate into different groups, start conversations, or play some games. The rest of the day would be filled with games, teamwork, and most importantly, laughter. Campers would cheer on anyone performing or dancing, even if they weren't on the same team. On the last full day, we attended mass with Father Bang, ate a wonderful dinner, and watched a talent show, finishing the day off with an amazing concert. This year's camp was honestly one of the best camps I've gone to, and I will always, always go again.



(Jul. 29, 2018)
LOAVES & FISHES
Word Search
Answer

	F	I	V	E					
H	L	N	E	T	A	E	W		
S	G	R	A	S	S	F	A		
P	I	L	I	H	P	P	U	N	O
Z	F	I	E	V	L	E	W	T	C
F	O	O	D	G	A	T	H	E	R
P	L	O	A	V	E	S	N	D	A
D	N	A	S	U	O	H	T		
S	K	N	A	H	T	H	T		
				T	S	E	T		

2018 알링턴 교구 복사단 피크닉

알링턴 교구 성소국에서는 지난 7월 26일(목) 교구 복사단 피크닉을 갖고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Lake Fairfax Park(Reston 소재)에서 가진 이번 피크닉은 교구 내 각 성당에서 봉사하는 복사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놀이와 점심을 제공하며 복사들을 격려했으며, 본당 복사단에서도 8명의 학생과 권용우 선생, 학부모를 그리고 성소후원회에서 참가했다. 특별히 피크닉에 참가하신 마이클 버어비치 주교는 참가자들에게 “각자의 성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늘 마음을 열어 놓을 때 언젠가는 하느님이 신부와 수녀로서 부르실 것”이라며 “그 부르심에 기쁘게 ‘예 - Yes’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열 다섯여 명의 사제와 신학생들은 백 이십여 명의 참가자들과 어울려 각종 스포츠와 놀이를 하였고 Knights of Columbus 에서는 맛있는 햄버거와 핫도그를 제공했다.

복사단 피크닉은 알링턴 교구에서 복사단 학생들을 위해 개최하는 연중행사 중 하나로 내년 7월에도 가질 예정이다.



제3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제3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열 명의 하상 한국학교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김정선 아가다 교사는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연수에 참여한 하상 한국학교 교사들은 “전문적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열정과 지혜를 배운 시간이었다”며 “배움의 시간을 함께 나누며 좋은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요한회 버크 노인 아파트 방문



50대 교우들의 활동단체인 요한회(회장 박동성 미카엘)가 지난 7월 30일 (월) 오후 버크 노인 아파트를 방문하여 한인 노인들을 위로하고 목주기도를 함께 드렸다. 요한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빌었으며 기도 후에는 준비해 간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한회는 연중행사로 애난데일 및 버크 노인 아파트를 각 2회씩 방문하는 등 신앙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구인광고

봉제공장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구합니다.

☎ 문의: 안나자매 (571)643-4369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신자 여러분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8월 15일(수) 오전 11시, 오후 8시

2 구역임원 교육

- 일시: 8월 5일(일) 오전 11:30(B-1,2)

3 바오로회 총회 및 새 임원 환영식

- 일시: 8월 5일(일) 오후 1시(나눔터)
- 문의: 이성근 예레미아 (703)672-1932/
E-mail: sleeh@yahoo.com
- 바오로회에 관심있는 20-30대 결혼하신 분들은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모회 임원회

- 일시: 8월 5일(일) 오후 1시(B-1)

5 메디케어 세미나 (교육부)

- 일시: 8월 5일(일) 오전 11:30(A-1,2)
- 내용: 메디케어 기본상식
- 강사: 최경분 클라라(Asa Financial 대표)
- 문의: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6 성소와 성소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 사제와 수도 성소 그리고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 미사: 8월 10일(금) 오후 7:30(미사 후 묵주기도)
- 문의: 성소 후원회 (703)403-1185

7 공동체 기도회

- 일시: 8월 11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8 단체장 회의

- 일시: 8월 12일(일) 오전 11:30(B-3,4)

9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8월 12일(일) 오후 1시(B-3,4)

10 주일학교 등록 안내

- 2018-2019 주일학교 등록을 하상관 로비에서 받습니다.
- 신청: 7월 8일-8월 12일, 10시 미사 후
- 등록비: 한 자녀 \$80 / 한 가정 두 자녀 \$15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윤정보일 (703)371-3589

11 K of C 정기모임 및 Post Great Knight 밤

- 일시: 8월 18일(토) 오후 5시, 이재원 야고보 형제덕
- 문의: (703)623-8253

12 제78차 예비자 영세 일정, 종합교리 및 찰고

- 종합교리: 8월 21일(화), 8월 22일(수) 오후 8시(하상관)
- 찰고: 8월 23일(목) 오후 8시(하상관)
- 영세 및 견진식: 8월 24일(금) 오후 7:30 미사 중
- 환영식: 8월 26일(일) 오전 11:30(A-1,2)
- 문의: 원철희 토마스 (703)203-0332

13 2018 - 2019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

- 학사 일정: 2018년 9월 8일- 2019년 5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등록: 10시 미사 후 친교실 (8월 5일 - 8월 26일)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육옥영 교감 (703)598-5540

14 셔틀버스 픽업 추가 및 셔틀버스 시간표

- 8월 5일(일)부터 오전 9시 Tysons Corner 시니어 아파트에서도 픽업합니다.
- 알렉산드리아 시니어 아파트와 애난데일 시니어 아파트는 변동이 없습니다.
- 셔틀버스 시간표 변경(8월부터) 오전 7:30(옛 IBM주차장) - 오후 1:30(성당)까지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15 2018년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 교육 기간: 2018년 9월 4일 - 2018년 12월 2일
- 등록: 2018년 8월 12일 - 9월 4일까지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수강 과목: 컴퓨터(초,중,고급), 스마트폰, 키보드, 수채화, 동양화, 한국어, 스페인어, 문예창작, 생활영어(회화), 수지요법, 합창교실, 한국무용, 장구반, 기타(Guitar), 색소폰, 손뜨개 교실, 요가, 라인댄스
- 대상: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50(점심 제공)
- 문의: 김명희 올리비아 교장 (703)217-2775

10시 미사 미사곡 변경(8월 5일부터)

자비송: 320 / 대영광송: 321

복음 환호송: 366 / 거룩하시도다: 322

주님의 기도: 388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389

하느님의 어린양: 324

축하합니다!

성 라우렌시오 영명축일(8월 10일)을 맞으시는 방명준 보좌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8주간: 2 역대 1-7, 사도 1-2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9일(목) 오후 5:00-6:00
8월 10일(금) 오후 8:00-9:00
8월 12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뉴스

- **님 따라 한평생**: 가톨릭 대학장, 서울대교구 보좌, 광주 대교구장 등을 역임한 최창무 주교의 일생을 돌아본다.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 ·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7월 29일(연중 제17주일)

주일헌금	\$ 7,374.00
교무금	\$ 7,15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1,800.00
특별헌금	\$ 150.00
2차헌금	\$ 0.00
합계	\$ 16,47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옛 IBM 파킹장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지(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아나시오), 안순겸(모니카), 최재준(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필승(셈마), 백영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넬), 장미래(아네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백침(프란치스코), 주기원(필립), 최홍철(안토니오),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승(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아나시오), 이호현(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5일(일)	연중 제18주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오후 1시, B-1), 바오로 총회(오후 1시, 나눔터),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6일(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7일(화)	연중 제18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8일(수)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8시)
9일(목)	연중 제18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교리교사(수료)를 위한 미사(오후 7시, 성당)
10일(금)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미사 후 성소와 성소 후원회원들을 위한 묵주기도(오후 8시), 바오로 형제회 모임(오후 8시), CLC 모임(오전 10시, 오후 8시)
11일(토)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8월 12일(일)	연중 제19주일	단체장 회의(오전 11:4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재속 프란치스코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형)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체넬리 703-429-4622 러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 (마키엘) 703-881-115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페어팩스 부동산 Nina Park 703-303-699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주일학교 수업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토요일 새벽	07:30 PM
월 & 목	06:00 AM
수요일	11:00 AM
화 & 금	07:30 P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